



과학원 뒷동산을 거닐며...



金 虎 起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책임연구원〉

20년 세월 ... 아쉬움과 悔恨

녹음방초화안한 신록의 우리 과학원 뒷동산을 점심식사후 산책하는 것은 흥릉에서 일하는 큰 즐거움의 하나이다. 이 복잡한 서울에서 아직도 이름 모를 새소리를 들으며 일할 수 있는 것보다 큰 복이 없을 것 같다. 과학원 창립멤버의 일원으로서 처음부터 이곳과 인연이 있었던 나로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감회가 깊다.

그동안 우리손으로 심었던 나무들도 몰라보게 자라있고 나라도 동네도 무척 달라졌다. 20여년의 세월이 그토록 눈감작하는 사이에 지나갔는데 스스로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회한으로 가득차 있다. 명예교수로서 유유자적한 노후를 즐기시는 교회의 李炳昊선생은 나의 그지없이 좋으신 산책길의 벗이다. 이 동산에 때가 되면 피고 지는 나무와 꽃들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어지러움으로 차있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이 교수가 일전에 읊어주신 張子房의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의 귀절이 그옛날 사람의 말이지만 지금도 듣기 새로운 만고의 진리로 느껴진다.

悲莫悲於精散 슬프디 슬픈 것은 마음이 산란한 데 있다.

苦莫苦於多願 고되고 고된 것은 바람이 많음에 있다.

孤莫孤於自恃 외롭고 외로운 것은 스스로 잘난 데 있다.

藥莫藥於知足 즐겁디 즐거운 것은 만족함을 아는 데 있다.

자칫하면 정적이고 발전성이 없는 폐쇄한 옛 동양철학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는 이러한 깨끗한 마음의 바탕에서 과학도

문화도 창조의 날개를 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것이다. 무릇 역사속의 위인들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忠武公은 백의종군끝에 노랑대첩의 공을 세웠고 茶山도 오랜 유배생활을 오히려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빛나는 역작들을 완성하였다.

美國 SF탐색관의 교훈

퀴리부인의 위대한 연구업적도 모두 어려운 환경이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의 SF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꼭 그곳의 탐색관(Exploratorium)을 들러볼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이 과학관은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종래의 정적인 전시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람자 자신이 전시물과 혼연일치가 되어 함께 움직이고 작동하며 과학의 원리를 배우며 기술응용의 창조적 세계를 펼쳐가도록 연구하게 하는 재미있는 곳이다. 이 과학관의 창설자인 후랭크·오펜하이머박사야말로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과학자요, 교육자였다. 그는 원자탄의 아버지로 유명한 그의 형 로버트에 못지 않은 원자물리학자였다. 동위원소분리와 우주선연구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면서 미네소타대학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1949년에 그에게 불행이 닥쳤다. 그는 당시 극우의원이었던 막카시의 반공 숙정운동의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막카시 선鋒'으로 그의 형 로버트도 원자력위(AEC)위원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콜로라도의 어느 시골목장에서 10년 가까이

소를 키우며 살아야 했지만 물리학연구를 금지당했다고 그의 정열과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 목장을 경영 하면서 온갖 기구를 스스로 제작하고 개량하며 과학기술연구 활동이 반드시 대학의 실험실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골의 목장에서조차 얼마든지 창의성이 계발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57년에 시골고등학교의 과학교사가 되어 자라나는 젊은 싹들에게 정열적으로 기계, 열, 전기 등에 관한 과학의 원리를 가르쳤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네가게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재료나 폐품같은 것을 이용하여 실험기구를 만들어 재미있게 실험하며 창의성을 펼쳐가도록 하는 교육에 온 정성을 다해 제자들이 과학경진대회에 입상하는 것을 더없이 즐거워했다. 59년에 콜로라도대학 교수가 되고 소립자물리 연구를 재개할 수 있었던 오펜하이머는 초중고등학교의 과학 교재개발과 과학관과 관련된 연구에 계속 정열을 쏟았다.

과학도 자연스러워야

그는 가르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았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과학의 이해와 응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창의의 날개를 달게 하는 일에 큰 보람과 기쁨을 가졌다. 그는 이를 마치 고속도로를 지나가며 “저기 사슴이 간다”라고 아이에게 외치는 어른의 말에 비유하였다. 얼핏보면 복잡해 보이는 자연현상이나 기계의 작동원리도 일상생활에서 자주보는 현상을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늘 고안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정이 바로 탐색관이다. 68년에 SF시가 창고로 쓰던 15년의 엑스포때의 옛 미술관 건물을 인도받아 큰 비용없이 평소에 그가 구상하였던대로 과학교육의 장으로써의 관람객이 전시품과 함께 움직이고 작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과학관을 창설한 것이다.

몇해전 국립중앙과학관재직시 몇 달을 밤샘하다시피 준비해서 대덕연구단지의 새로운 전시관개관행사를 무사히 마친 다음 미국의 주요 과학관 방문여행을 했었다. 그때 물론 SF의 탐색관을 빼 놓을리 없었다. 당시에는 오펜하이머박사가 서거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후임관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안셀부 장관이 나를 안내했다. 탐색관 이사회가 오펜하이머의 카타르시스를 이어갈만한 관장을 선출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며 장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불란서 파리에 새로운 개념의 거대 과학관 「리빌렛트」의 창설사업을 주도하였던 고에

리·들라코트박사가 탐색관의 관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들라코트박사는 우리 중앙과학관 건설현장에 찾아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충고의 말을 해준 인연이 있다. 들라코트박사뿐 아니라 동서양의 주요과학관장들과 교환하면서 우리 과학관을 국제화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보자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졌었는데 뜻을 펴지 못하고 일년만에 과학관을 떠나게 된 것을 나는 아직도 못내 아쉬워 하고 있다.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모두 좋아하는 세상인데 정작 서울사람인 나는 대덕을 떠나는 날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우리 직원들도 모두 아쉬워했다. 여직원들은 눈물까지 보여 주었다. 그보다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때 찍은 사진을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과학도 자연스러운 것이라야 참되고 멋있고 또 우리생활에 유익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우리 동산을 이름답게 가꾸는 마음으로 끈기와 사랑으로 우리 과학기술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참을성 있게 오래 동굴을 지켜 하늘의 아드님을 모시게 된 용녀의 지손인데 언제부터인가 매사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는 용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과학원 뒷동산에 20여년 자란 나무를 가꾸어야지 다른산의 나무가 탐난다 해서 마구 옮겨와 심으면 실패하기가 쉽다. 마찬가지로 연구계획이나 사람을 쓰는 일에도 처음 생각대로 잘 안된다고 해서 기다림없이 이리저리 자주 바꾸는 것도 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知天命」을 과학 밀걸음으로

오늘도 과학원 뒷동산을 거닐며 지난 20여년의 지냈던 일을 회고하게 된다. 함께 걷는 교회의 대선배과학자는 내게 말씀해 주신다. “철마다 피고 지는 꽃을 보다가,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지나고, 그러다가 엔젠가는 너도 나도 조용히 가는 것이지...”

지천명(知天命)을 지내고 보니 나도 그 말씀의 뜻을 알 것만 같다.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인데 해마다 피고 지는 꽃과 낙엽이 쌓여서 거름이 되어 우리 뒷동산을 이렇게 정답고 아름답게 했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57**